

포스트하위문화 관점의 한국 타투문화

김가현 · 하지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Tattoo Culture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ost-subculture

Gahyun Kim · Jisoo Ha*†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8, 2021; Revised January 3, 2022; Accepted January 11, 2022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enomenon of modern people enjoying tattoo culture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ost subculture.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using both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methods. For post-subculture perspectives, the theories of Maffesoli (2017) and Thornton (1996), which are suitable for interpreting contemporary tattoo culture, were reviewed in terms of seven concepts: sporadic network, grouping, fluid participation, temporary emotional bond, self-distinction, pursuit of underground culture, and display and concealment.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constructed and administered based on the organized characteristics. Five cultural qualities of the tattoo phenomenon in Korea were derived based on post-subculture concepts. *Sporadic formation* is related to the pattern of inflow into tattoo culture, and *“streaming” participation* is based on fluid participation and temporary ties. *Distinction within subculture* is based on self-distinction and pursuit of underground. The *costume-playing ordinary* concept includes the characteristic of controlling the exposure of tattoos in society. Finally, *formation of the consumer tattoo market* was newly discovered in Korean tattoo culture.

Key words: Tattoo culture in Korea, Clothing culture, Post-subculture, Streaming participation, Distinction within subculture; 한국 타투문화, 복식문화, 포스트하위문화 관점, 스트리밍적 참여, 하위문화 내 구별 짓기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사회에서 특수한 복식문화로 역할을 하고 있는 타투를 조명하여 현대인들의 타

†Corresponding author

E-mail: jisooaha@snu.ac.kr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 플러스 의류패션 전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투문화 향유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타투는 문신과 동의어로 본 논문에서는 ‘자국’, ‘흔적’, ‘상처’의 의미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타투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타투를 뜻하는 라틴어 스티그마(stigma)의 현대의 사전적 의미는 ‘오명’, ‘수치’, ‘불명예’, ‘낙인’이며, 본래의 맥락적 의미가 타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Gilbert, 2000/2004). 국내에서는 타투시술이 여전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투소유자와 타투리스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타투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타투는 영구적이고, 시술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통증을 수반하기도

하며, 특정 집단에서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외모 꾸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타투문화만이 가진 복식문화적 특수성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현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복식문화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사료된다.

타투가 시작된 이래로 타투문화는 대중문화이거나 주류문화였던 적은 거의 없고 소수문화 내에서 향유하는 비주류문화였고, 문화권에 따라 치료나 형벌과 같은 도구적 목적, 신체 장식 혹은 문양이나 위치를 통해 자본과 사회적 지위를 전달하는 등 집단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일부 문화권에서는 예술로 인정받는 등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적도 있지만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코드로 소통되는 문화였다. 본 논문에서는 타투문화를 고찰함에 있어서 하위문화적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위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20세기 학자들은 하위문화를 지배적인 가치에 저항하고 주류문화로부터 떨어져 나온 문화라는 위계적인 차원으로 정의하거나(Hebdige, 1979/1998), 분절화된 소수집단의 문화로 정의하였지만(Gordon, 1964), 이러한 정의들은 특정 시기의 문화 현상을 관찰하는 데는 적합하였으나 현대에 적용되기에는 한계점이 발견된다.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학문적 기반에서 하위문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하위문화 연구동향은 포스트하위문화 연구로 흘러가게 되었고, 팬 문화, 음악 신, 패션 등 사회 내의 다양한 하위문화를 논의함에 있어 포스트하위문화 관점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Kim & Ha, 2018a, 2018b; Kim, 2017; Muggleton, 2005; Redhead, 1997; Robards & Bennett, 2011; Roberts, 2015).

타투문화는 다수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용되며 새로운 의미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상을 뒷받침해줄 학문적 기반이 부족하다. 국내에서도 고정된 정체성의 하위문화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포스트하위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한 취향공동체로 구성된 타투문화를 이해하고 시의적절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현재까지 타투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문헌연구로는 한국학이나 민속학에서 타투에 대한 사적 고찰을 주로 하였으며, 동양에서 형벌문신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시대적 배경이나 유래에 집중하였다(Cho, 2002; Kim, 2013; Lee, 2007). 또 한국 사회에서의 타투의 의

미가 변화 흐름을 파악하여 시대별 사회·문화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 연구(Bang, 2008; Kang, 2008)들이 진행되었다. 이는 타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현 시점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타투소유자를 통해 현상을 분석한 것은 시술 및 부작용과 관련한 의학적 연구가 대부분이며(Lee et al., 2011), 타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 역시 수감자, 군인, 운동선수 등 특정한 피험자에 한정하여 심리적 이상 상태의 발현이라는 정신 병리학적 해석을 하였다(Jeong et al., 1991; Kim & Kang, 2015). 현대인들의 타투착용 현상을 분석하여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 연구들은 개인이 타투에 부여하는 의미와 상징에 집중하였고(Kim & Ha, 2018b; Kim & Kang, 2015; Nam, 2018), 이를 거시적 관점의 복식문화 현상으로 확대시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의류학에서는 타투의 외형적 특성에 주목하여, 타투 룩(tattoo look)과 같이 타투이미지를 차용한 타투패션의 표현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Kim & Lee, 2007; Kim & Geum, 2016; Lee & Kim, 2004; Yun & Yoo, 2001). 해당 연구들은 ‘타투한 몸’ 또는 전형적인 타투의 도안과 색깔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관찰하는데 그쳤다. 현대의 타투가 하나의 복식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상 속에서 복식으로서의 타투의 미적인 측면을 주목한데는 의의가 있지만, 타투를 직접 개인의 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하는 개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더욱 풍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내에서 타투문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며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타투문화와 관련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타투소유자가 현대의 취향문화로서의 타투를 향유하는 현상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다. 게다가 현대의 타투는 특수한 복식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타투를 착용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의류학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점차 그 크기를 넓혀가고 있는 타투문화와 그 안에서 현대의 복식문화로서 타투를 향유하는 일반적인 타투소유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타투소유자들이 영구적인 신체변형 행위인 타투문화에 진입하고, 참여하고, 집단 내부적으로는 응집하거나 배척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타투 노출을 조절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 등과 관련되는 문화 향유 현

상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이 타투문화를 향유하는 현상을 포스트하위문화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국내 타투문화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요 개념들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Maffesoli(2000/2017)가 저서 『부족의 시대』에서 제시한 신부족의 개념과 영국의 사회학자 Thornton(1996)의 『Club cultures』에서 설명한 하위문화 자본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학문적 기반이나 관점이 상이할 수 있는 두 학자의 이론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포스트모던 사회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주요한 시야를 제공하지만,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각각의 시각을 통해 참고할 수 있는 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더욱 풍부한 해석을 위해 두 이론을 모두 참고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문헌연구와 심층면접법을 병행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타투의 의미는 시대나 문화권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따라서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문헌연구와 일부 양적 연구방법론에 치중하여 이루어졌다. 양적 연구는 일반화를 위한 설명적 관계를 찾기 위해 맥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Stake, 1995), 독특한 맥락 내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현상을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타투가 패션·문화적으로 유행하는 현상 내에서 개인들이 타투라는 영구적 신체변형 행위를 내재화하고 발현하여 문화를 향유하는 과정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려는 본 연구에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Maffesoli(2000/2017)는 포스트모던 사회로 접어들면서 발생한 문화 현상의 부족주의적 특성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현대 타투문화의 형성과 참여, 소통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취향에 따라 응집하는 현대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스타일 및 취향에 따라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 즉 집단 내에서 하위문화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동하며 파편적인 집단을 구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위해 하위문화 자본의 유동적인 재편 과정과 관련되는 Thornton(1996)의 시각을 고찰하였다.

정리된 특성들을 기반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신체에 타투시술을 3회 이상 받은 적이 있고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는 국내

20~30대 성인 남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지인 소개에 더불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중 타투이스트의 대표적인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이용되는 이유로 대부분의 타투소유자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Instagram)에 타투 관련 해시태그(#)와 함께 공고문을 게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타투소유자를 선정하였다. 총 25명의 타투소유자와 면접을 진행하였고, 불성실한 답변이 많아 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1명의 사례를 제외하고 24명의 자료를 본격적인 분석에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은 2019년 2월 10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었고, 내용의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 모집을 위한 연구설명서, 동의서, 모집 문건과 질문지 등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IRB No. 1811/002-013).

II. 포스트하위문화와 타투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하위문화 연구동향이 포스트하위문화 개념으로 흘러가게 된 흐름과 포스트하위문화 연구의 주요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고찰하여 국내 타투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포스트하위문화 관점을 도출하였다.

1. 포스트하위문화 연구의 흐름

1964년 설립된 영국 버밍엄 대학의 현대문화연구소(CCCS: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는 하위문화에 대한 논의를 크게 발전시킨 공간이다. CCCS는 사회 구조가 하나의 획일적인 문화를 지니는 대신 각각의 지배적인 권위를 가진 여러 개의 계급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고, 계급관계가 사회 구조에서 개인의 위치를 결정짓는 요소로 보았다(Hall & Jefferson, 1976; Hebdige, 1979/1998; Hoggart, 1958; Williams, 1971, 1976). 따라서 인종, 성, 계급, 세대 등으로 구분된 개인들의 삶의 방식을 하위문화로 바라보았고, 하위문화의 헤게모니적 저항성에 주목하여 문화 영역을 일종의 정치적 투쟁의 공간임을 시사했다.

CCCS의 하위문화 연구에는 주류라는 모호하고 모순된 환상이 만연해있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평가하여 하위문화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주류에 대한 키메라(chimera)를 계속해서 언급하며 쉽게 하위문화를 위치시킬 수 있는 기준점을 남겨두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하위문화를 계급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나는 문화 집단으로 규정하였으며, 집단마다의 경계를 비교적 뚜렷하게 인식하여 집단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Hebdige(1979/1998)의 연구는 이 시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하위문화 연구로 꼽히는데, 그는 하위문화들이 표상하는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은 스타일 내에서 표현되고 전달된다고 주장하며, 1970년대 영국 도시에서 나타난 펑크 의상, 타투, 레게 음악, 테디보이의 복고의상 등 하위문화 스타일의 물질적 형태를 다뤘다.

후기 CCCS 학자들은 하위문화 스타일은 궁극적으로 주류문화에 빼앗겼다고 주장한다(Atkinson, 2002). 하위문화의 특정 패셔, 음악, 언어 등은 주류문화에서 패셔너블한 코드로 받아들여져 기존의 하위문화적 진정성을 잃었다. 삭발, 염색, 찢어진 옷, 타투 등 한때 저항이라는 정치적 상징물로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이념적 가치가 퇴색되고 대중적인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Muggleton, 2000).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화된 하위문화 스타일이 대중에 의해 선택되기 때문에, 특정 스타일로 꾸미는 것이 더 이상 하위문화의 멤버십을 의미하지 않는다(Fiske, 1989). 따라서 하위문화를 식별할 수 있었던 상징물이 이제는 모호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위문화 개념은 포스트모던 사회학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언급되며 다듬어졌다. 사실상 포스트하위문화라는 개념을 post-CCCS의 개념으로 보는 것도 무방하다(Muggleton & Weinzierl, 2003). 포스트모던 사회학자 Prus(1997)는 사회 조직에 대한 거시적 관점과 하위문화 참여에 관한 미시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사회는 하위문화의 집합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개인이 평생 특정한 궤도 내에서 하나의 하위문화의 구성원으로만 존재한다는 개념을 거부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다양하고 순간적인 하위문화적 참여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다. Haenfler(2014) 역시 포스트하위문화의 특성을 불분명한 경계로 여타 사회적 조직에 비해 느슨하게 구성되며,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과 특별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공유되는 가치 및 사

물은 기존의 의미와는 달리 능동적으로 창조된 개념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Maffesoli(2000/2017)는 집단 정체성은 더 이상 계급, 젠더, 종교와 같이 전통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호에 따른 소비행동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Maffesoli(2000/2017)의 이론은 현대인들의 음악적, 스타일적 취향과 정체성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집하는 특성을 설명한다. Maffesoli(2000/2017)가 설명한 새로운 사회성은 산발적이고, 유동적이며, 순간적에 가까우며, 따라서 개인들은 여러 개의 정체성을 오가며 표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신부족들은 자신이 속한 하위문화를 그들의 일상에서 최우선 순위로 두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산발적으로 몰입하여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킨다(Bennett, 2011). 개인이 하나의 집단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Prus(1997)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며, Maffesoli(2000/2017) 역시 하위문화의 경계를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많은 학자들은 하위문화가 다차원적으로 구성된다는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였다.

기존의 하위문화 연구와 포스트하위문화 연구의 관점의 가장 큰 차이는 CCCS에서 바라본 하위문화는 경제적 자본에 의해 계층이 분화되고, 주류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이 저항적 정체성을 체화하며 발생하지만, 포스트하위문화는 취향 기반의 새로운 자본에 의해 발생한다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이다. 기존 시각에서 하위문화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단일하고 고정적인 반면 포스트모던 사회의 하위문화는 주류라는 것을 따로 규정하여 구분 짓지 않고 끊임없이 넘나들기에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복식스타일도 기호학적 해석이 가능한 상징물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포스트하위문화의 복식스타일은 무질서하고 외부적으로 해석되기 힘들고, 내부적으로 의례를 따르고 있어 구성원들만이 상징물을 식별할 수 있다.

타투문화 역시 기존의 하위문화 개념을 통해서 해석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현대에 나타나는 새롭고 독특한 특성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포스트하위문화 관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국내 타투문화를 분석할 수 있는 본 연구만의 관점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자의 시각에서 특징적인 포스트하위문화적 개념들을 정리하였다.

2. 타투문화 고찰을 위한 포스트하위문화 관점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타투 하위문화 집단의 형성, 소통, 참여, 배척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고찰하기 위해, 포스트하위문화 학자 Maffesoli(2000/2017)와 Thornton(1996)의 시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타투문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개념을 정리하면 산발적 네트워크, 끼리끼리 모임, 유동적 참여, 일시적인 정서적 유대, 스스로 구별 짓기, 끊임없는 소수 찾기, 보여주기와 감추기로 7가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Table 1>과 같다.

1) 산발적 네트워크

많은 사회학자들은 종교를 논했는데(Durkheim, 1916/2017; Weber, 1920/2018) 그들에게 종교적 모델은 사회적 유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다(Maffesoli, 2000/2017). Troeltsch(1901/2005)는 교회유형과 종파유형을 구분했는데, 교회유형은 안정, 사회 질서, 동화 등으로 설명되는 제도화된 유형인 반면 종파유형은 충동, 무질서, 세계에 대한 저항과 거절 등으로 설명되는 산발적인 형태의 유형이다. 교회유형에서 출발해 특징지을 수 있는 시기들이 있다면, 종파유형으로 식별되는 시기들이 있으며, Maffesoli(2000/2017)는 후자를 참조하여 포스트모던 사회를 설명하였다.

초기 기독교 세계는 로마제국 전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작은 개체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 ‘성인 통공’이라는 고상한 이론을 퍼뜨렸다(Maffesoli, 2000/2017). 이 관념은 신자들과 죽은 신자들 간의 영적 결속을 의미하는 기독교적 믿음이며 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일치 속에 자신도 포함된다고 느끼기만 해도 충분하였다. 정서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기독교 문명을 탄생시켰고, 오늘날 인터넷 기반의 메신저 등에서도 유사한 유대를 발견할 수 있다(Maffesoli, 2000/2017).

또한, 종파유형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민중적 기초이다. 초기 기독교 및 중세의 종파는 신분이 낮은 민중과 노예를 우선적으로 끌어들이었으며, 중앙 집중화된 권력에 대해 무관심하였다(Maffesoli, 2000/2017). 종파 내에서 모든 것은 모두의 일에 해당하고, 각자가 각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처럼 종파는 지역 공동체로서 지리적 근접성에 의존해 자체적으로 살아가며 제도적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종파의 이념형은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형식을 상징한다. 오늘날 생활양식은 모던 사회처럼 하나의 극점에서 출발해 구조화되지 않으며, 약간은 우발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기회, 경험, 상황에 종속된다. 산발적으로 퍼져나가는 네트워크 현상을 서술한 ‘종교적 모델’은 현대의 하위문화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 끼리끼리 모임

소집단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는지 선택적 사회성(elective sociality)이라는 표현을 통해 분석하였다. 집단 구성원들의 집결은 각 인원들에 고유한 원자가(原子價, valence)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서로 끌어당김과 밀침의 과정들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Maffesoli, 2000/2017). 그가 쓴 ‘원자가’라는 메타포나 끌어당김(인력)과 밀침(척력)의 표현을 우리 식으로 풀어보았을 때 ‘끼리끼리 모임’이나 ‘유유상종’의 개념이다(Kim, 2007).

포스트모던 사회의 사회성 개념에서는 도달해야 할 목표보다 함께한다는 사실, 즉 관계주의가 핵심이다. Durkheim(1916/2017)은 국가와 개인의 자유를 매개

Table 1. Concepts and key words of post-subculture

Concepts of Post-subculture	Key Words
Sporadic Network	Communion of Saints, Network, Anarchism
Grouping	Attraction and Repulsion, Affects, Relationismus
Fluid Participation	Nebula, Mobile, Temporary Gathering, Scattered
Temporary Emotional Bond	Festival, Liminality, Communitas, Shared Affection
Self-distinction	Subcultural Capital, Hipness, Distinction
Pursuit of Underground	Underground, Antipathy to media
Display and Concealment	Secret, Mask, Silence, Social Persona

하는 2차 집단의 개념을 제시하며 끌어당김과 밀침의 과정을 의미하는 정동(affects)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매개체로서의 정동은 이상과 목표를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조직되기도 하지만 개인이 속한 다양한 집단 안에서의 만남, 상황, 경험을 통해 존속되고 조직된다. 정동은 라이프스타일의 동질성으로 표현되는데, 여름 해변가의 스펙터클을 예로 든다. 해변가는 간격이 허물어진 하나의 독자적인 집단으로 보이기 쉽지만, 그 안에서 미묘하게 분화되어 있다. 패션, 정치, 성적 취향, 스포츠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집단들이 구성되고 중첩되며 전체를 구성한다. 사회는 이렇듯 정동에 따라 소집단이 구성되고, 외양 및 생활의 동질성이 나타나고, 소집단들이 겹쳐지고 밀어내는 과정 속에서 무질서하고 모호한 전체 즉 성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Maffesoli, 2000/2017).

3) 유동적 참여

현대에 다양한 집단들이 모이는 현상을 신부족주의라는 용어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신부족의 특성으로 ‘정감적 성운(the affectual nebula)’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성운은 윤곽이 불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싸는 무언가인, 불확실한 모임들의 형상이며, 이 성운은 수많은 사회적 상황과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공유된 감정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감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즉 ‘정감적 성운’이란 성운이 무질서하고 모호하게 뭉치고 흩어져있듯이 다양한 집단이 유연하게 교차해 있는 모습이자 사회성의 여러 형상이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대중이 단발적이고 희미한 윤곽의 다양한 모임으로 결집하고 흩어지며 형성된다는 것이다(Maffesoli, 2000/2017).

정감적 성운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사회성을 잘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실제로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의 반문화나 학생연합과 달리, 이제 관건은 한 무리, 한 가족, 한 공동체에 소속되기보다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의 오고감이다(Kim, 2007). 고전적 부족주의가 유발한 안정성과는 반대로 우리 시대를 설명하는 신부족주의의 특징은 유동성, 일회성 모임, 분산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공유된 감정이다(Maffesoli, 2000/2017). 다양한 형태의 신부족주의는 어떠한 정치적 기획으로도 식별되지 않고, 어떠한 합목적성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집단적으로 경험되는 현재

에 대한 관심만을 자신의 유일한 존재 이유로 삼는다. 따라서 현대의 개인들은 공동체에 유동적으로 참여하며 일관되지 않은 관심사나 의도들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집단으로 모이고 흩어진다.

4) 일시적인 정서적 유대

사회인류학자 Turner(1969)는 축제의 특징을 일상의 전도라고 하며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리미널리티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단계로 모호한 특성을 지니는데 이 단계는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종료되며, 압축적이고 비일상적인 상황이므로 극도의 흥분이나 일탈, 위험 등이 용인된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입지 않거나, 비일상적인 요란한 분장을 하고,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맺고, 단번에 진한 동료애를 느낀다. Durkheim(1916/2017) 역시 집합의식 혹은 감정을 강화하는 특징적인 순간들인 축제 및 집단행동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평소에 사회 내에서 이성적 개인의 우월함을 강조하였지만, 집단적 연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노미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며 감정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암시했다.

Maffesoli가 제시한 ‘쓸모없는 함께하기(the undirected being-together)’의 개념은 사회성의 충동 즉 모임의 목적이나 이익을 넘어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만족감과 관련이 있다(Kim, 2007). 앞서 언급한 축제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공격성이나 갈등의 형식을 취하는 집단행동이더라도 서로 모이고자 하는 충동은 존재하기 마련이다(Maffesoli, 2000/2017). 현대인들은 뚜렷한 목적 없이도 공통된 분모로 응집하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충족감을 느끼며 일시적인 유대를 경험한다.

5) 스스로 구별 짓기

Thornton(1996)은 Bourdieu(1979/1984)의 문화자본 개념을 빌려와 하위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하위문화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 바 있다. 그는 하위문화 자본을 ‘힙한 것(hipness)’이라는 속어로 설명하였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 시 ‘최신 정보에 밝음’으로 해석된다. Bourdieu(1979/1984)가 슬랭 용어 이면에 깊게 자리 잡은 의도는 결국 귀족적인 구별 짓기라는 점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구별의 판단 기

준을 Thornton(1996)은 하위문화자본으로 본 것이다. 하위문화 자본은 시스템 내부적으로 존재하여 식별되며, 외부의 시선으로 상징과 위계를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클럽문화를 관찰하여 포스트하위문화적인 특성들을 설명하는데, 현대사회에서 같은 음반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Thornton(1996)이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장이다.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것의 맥락은 매우 상이할 수 있고, 심지어 클러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문화 내에서 문화적 디테일과 가치판단에 대해 풍부하게 아는 것 즉 하위문화 자본은 무엇이 그들의 신(scene)인지 무엇이 타인의 신인지에 대한 뚜렷한 감각을 제공해주며, 이를 통해 외부적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클러버들은 그들의 집단과 그들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Thornton, 1996). 스스로 분류하는 것 말고는 그 무엇도 개인을 분류할 수 없다는 Bourdieu(1979/1984)의 주장처럼,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하위문화 구성원들이 입는 것, 사는 것, 듣는 것 등 드러나는 외부적 요소를 통해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해당 신 내 구성원들의 하위문화 자본에 따른 자체적인 분류가 집단을 구분 짓는 요소가 된다.

6) 끊임없는 소수 찾기

스타일 혹은 음악을 묘사할 때, 대량생산되고 대량 소비되는 것들에 대하여 언더그라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트렌디’, ‘패셔너블’이라는 형용사보다 더 정통이거나 진정성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현대 하위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구성원들의 미디어 소비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언더그라운드는 그들 스스로 매스미디어와 대항하여 위치시킨다. CCCS에서 언급한 주류와의 대치와 다른 점은 CCCS에서는 주류가 하위문화를 억압하고 이에 따라 하위문화가 저항적 정체성을 표출하게 된다는 주장이지만, 언더그라운드 문화에서 생각하는 대척 상대는 그들을 억압하는 규율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 즉 하위문화 자본을 다른 이들, 즉 대중에게 살포하는 미디어인 것이다.

하위문화 신에서는 무엇이 최신유행인가 보다는 무엇이 최신유행이 아닌가에 더 많은 합의들이 존재한다. 10대 청소년들이 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테크노

댄스 음악을 들으면서 사교를 하는 ‘acid house culture’가 소개되자 클러버들은 이 색다른 문화에 그들은 매혹되었고 그들의 문화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우스와 테크노가 앨범 순위권을 지배하며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이들은 이 문화에 흥미를 잃고 조롱하였다(Thornton, 1996). 하위문화 자본은 이처럼 파편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며, 미디어를 통해 자본의 내용이 발각되어 대중화되면 이는 이내 배척당하고 재빨리 새로운 자본으로 대체된다.

Thornton(1996)이 언더그라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위문화 구성원들은 ‘진짜 하위문화’, ‘진정한 비주류’를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사실이다. CCCS 이후의 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위문화의 스타일적 요소는 대중에 의해 빼앗겼다고 했듯이(Atkinson, 2002), 현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하위문화 내에서 발생하여 힘찬 것으로 구분지어지는 것의 외형적 요소를 미디어가 소개하고 이를 일반적인 대중이 패셔너블한 것으로 받아들여 소비하는 과정의 연속인 것이다. 이렇게 퇴색된 하위문화 자본은 폐기되고 다시 하위문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새로 생성되며, 대중미디어에 의해 노출되면 개척되지 않은 힘찬 것을 꾸준히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문화 집단의 구별이 모호한 현대사회에서도 신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소수의 것, 비주류를 좇는다.

7) 보여주기와 감추기

Maffesoli(2000/2017)는 이탈리아의 마피아들이 자신들이 유발한 비밀이 한편으로는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집단을 공고히 하는 점을 예로 들며, 근대 이후 대중의 특징 중 하나로 비밀의 법칙(the law of secrecy)을 제시하였다. 예로부터 비밀은 공동체의 기초적 연대를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만들어왔다. 집단 내부의 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집단의 영속성을 보장한다. 현대 대중을 구성하는 신부족들도 유사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현대의 거리에서 보이는 스타일들은 모두 보여주기와 감추기 사이에 어떠한 본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Maffesoli, 2000/2017).

가면은 여러 기능을 가지는데 그중 하나는 전체 구조 안에 페르소나를 통합하는 것이다. 괴상하고 알록달록한 머리, 개성 있는 타투, 빈티지 룩 등이 가면일 수 있으며, 이는 각자의 집단에 개인을 종속시키고 기

존 권력들에 대항하는 음모자로 만들지만, 당장에는 구조적으로 타인들과 결합시킨다(Kim, 2000). 하지만 가면처럼 통합된 페르소나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은 은폐되고 억압된다. 한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침묵은 집단 통합의 기능을 지닌다. 공유되는 비밀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더라도 공유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집단에 힘을 부여하고 구성원들의 행동에 활력을 준다. 비밀을 공유하는 집단은 일시적인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시선과 몸집으로 충분한 은연중의 암시로 서로를 구분해낸다(Kim, 2000).

Maffesoli(2000/2017)가 주장하는 가면과 침묵의 주제로 설명되는 ‘비밀의 법칙’은 사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며 더 과거의 사회 구조에서도 비밀을 통해 집단의 형성과 배제가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그가 신부족의 특성으로 강조한 것은 현대에도 여전히 집단은 배타적인 특성으로 결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비밀, 가면, 침묵 등의 개념은 보여주기와 감추기를 통한 사회적 소통 특성에 관한 현대적 해석이다.

III. 한국 타투문화의 포스트하위문화적 특성

일곱 가지의 포스트하위문화 개념을 기반으로 분석한 한국 타투문화의 특성은 타투문화로 유입되는 양상과 관련되는 산발적 형성, 일시적 유대를 기반으로 유동적으로 타투문화를 향유하는 스트리밍적 참여, 타투문화 내에서 유희상종의 법칙에 따라 응집하고 배척하며 비주류를 좇는 하위문화 내 구별 짓기, 사회 내에서 타투의 노출을 조절하는 과정과 관련되는 일반인 코스프레로 나타났다. 국내 타투소유자들의 답변을 통해 포스트하위문화 개념으로 분석할 수 없었던 한국 타투문화의 새로운 특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소비적 타투시장의 형성으로, 국내의 불법 예술시장에서 타투를 여타 패션아이템과 다름없는 하나의 소비재로 인식하고 쇼핑을 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산발적 형성

본 절에서는 타투소유자들이 타투문화로 유입되는 과정을 Maffesoli(2000/2017)가 언급한 용어를 빌려,

정서적 근접성, 지리적 근접성, 무정부주의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동경집단과 정서적 공감, 또래문화와 지리적 전염, 무정부주의적 소셜 네트워킹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동경집단과 정서적 공감

Maffesoli(2000/2017)는 성인 통공을 언급하며 스로가 그 속에 포함된다고 느끼는 정서적 공감만으로도 현대의 대중이 집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정서적 근접성을 타투소유자들이 동경하는 문화나 준거집단과의 정서적 공감으로 해석하였고,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동경하는 특정 문화 집단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수의 참여자들이 락, 힙합과 같은 음악 기반 하위문화 신의 뮤지션들을 동경하여 그들의 전반적인 스타일 자체에 공감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타투를 선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동경하는 하위문화가 무엇이든 그에 따라 타투소유자들의 타투스타일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Maffesoli(2000/2017)가 사회는 정서적으로 끌어당기고 밀치는 과정인 정동을 통해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스타일 및 생활스타일의 동일성으로 나타난다고 한 개념이 타투문화에서도 확인되었다.

“터프한 올드스쿨 스타일의,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그런 식으로 라이딩 하고, 그런 친구들과 담배를 피고 모여서 놀고 그런 거잖아요. 그 타투문화가 생겨난, 그때 당시의 문화와 커뮤니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운을 가진 현대의 사람들이 이 문화에 끌려서 타투를 갖게 되고... 주파수 대역이라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마다 주파수가 있고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엔 같은 걸 향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참여자 G, 남, 29세, 음악가)

2) 또래문화와 지리적 전염

Maffesoli(2000/2017)는 종파유형이 형성될 때, ‘민중적 기초’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하나의 권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여 형성되기보다, 일종의 감정의 전염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내집단에서의 동조를 통해서 타투문화로 쉽게 유입되는 모습이 발견되며 지리적 근접성 개념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타투를 받은 친구들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타투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다고 밝혔고, 타투를 한 친구들과 모이게 된다고보다, 기존의 또래집단 내에서 한 명이 타투를 하면 해당 집단 구성원들도 이에 동조하여 쉽게 타투를 받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타투는 또래집단 내에서 전염 현상처럼 수용되어 확산되었지만, 앞서 밝힌 하위문화에의 정서적 공감을 통해 스타일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스타일의 동일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내에서 타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서로 동조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확산되는 경향이었지만, 타투의 디자인, 부위, 스타일 등은 각자가 선망하는 문화와의 공감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무살 때부터 막연하게 해보고 싶긴 했는데, 같이 친했던 친구가 타투를 하러 갔었는데,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보고, ‘아 나도 나중에 타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X, 여, 28세, 회사원)

3) 무정부주의적 소셜 네트워크

Maffesoli(2000/2017)가 언급한 무정부주의란 하나의 절대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구성원들도 특정 권력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적어도 무관심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연구자는 여기서 절대적인 권력이란 개인들이 인지하는 특정 문화의 영향력으로 해석하였고, 동경 하위문화나 연예인의 타투 등이 포함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타투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이자, 타투문화를 향유하게 된 배경으로 SNS 중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는데, 이는 현대의 문화 형성 및 전파 과정이 과거와 달리 매우 산발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현대의 타투소유자들의 특수한 소통 특성의 하나로 해석된다.

현대의 타투는 집단의 상징물이던 과거와 달리 개인적인 소유물이 되었기에, SNS상의 타투리스트를 포함한 불특정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흔하게 나타났다. SNS 내 동조는 특정 스타일이라고보다는 콜라주 형식으로 취향에 따라 산발적인 동조가 일어났다. 따라서 산발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동조로 구성된 몸은 개인적인 기호의 집합이기 때문에, 외형만으로는 쉽게 집단으로 묶이지 않는 현대적 특성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했다기 보다는 인터넷에서 떠

도는 모델들 사진 보면 너무 섹시하고 멋있게 보였고 그랬죠. 제 퍼드의 반 정도는 다 타투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와, 이런 구도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주제를 담을 수도 있구나’ 하고 영감을 많이 받아요.” (참여자 I, 남, 30세, 회사원)

2. 스트리밍적 참여

현대의 문화를 가장 강력하게 규정할 수 있는 최신의 용어 중 하나는 아마도 스트리밍(streaming)일 것이다. 이는 콘텐츠콘텐츠를 소유하지 않고 그때그때 소비하는 형태의 문화이다. 현대인들은 스트리밍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하며 정서적 공감을 통해 일시적으로 함께하며, 순간이 지나면 흩어진다. Maffesoli(2000/2017)가 설명한 포스트모던 사회의 집단은 지속적이기보다 순간적으로 모였다가 분산되고 중첩되기에 각 개인은 순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여러 집단에 유동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속하게 된다.

현대 젊은 세대의 타투소유자들은 타투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와는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현대의 문화를 설명하는 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을 통해 타투문화에의 참여 특성을 일시적 머무르기, 표류적 넘나들기, 비밀상적 유대로 정리하였고, 문헌고찰에서 정리한 유동적 참여 특성, 일시적인 정서적 유대 특성에서 근거를 찾았다.

1) 일시적 머무르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타투를 좋아하지만 타투문화 자체에 온전히 몰입해있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타투는 하나의 기호품에 속했다. 어떠한 하위문화에 속하거나, 대중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사회를 계몽하겠다는 의지는 미미했고, 그저 타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간단한 정보탐색과 일상적 소통을 위해 필요에 따라 온라인 타투 관련 사이트나 인스타그램을 표류한다고 밝히며 타투문화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참여자가 다수였다. 심지어 타투문화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참여자도 여럿 나왔다. 그들은 타투문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투가 개인을 구성하는 액세서리 중 일부라고 생각하였다. 기호에 맞는 타투의 외형적인 요소를 빌려와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타투가 집단의 점착제 역할을 한다거나 집단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누구도 단정 짓기 힘들 것이다.

“제가 사실 문화에 참여하거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인스타그램으로만 가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보는 거지, 제가 타투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타투에 대한 어떤 포럼에 참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타투를 하려고 정보를 얻는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F, 남, 26세, 대학생)

2) 표류적 넘나들기

포스트하위문화에서 특수한 성격 중 하나는 집단이 수없이 중첩되기에 개개인이 다양한 집단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 다수는 본인이 지속적으로 속해 있는 집단에서 일시적으로 타투 관련 소통을 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언급된 집단은 타투 관련 커뮤니티도 아니고 일상적인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였고, 그 안에서 타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 정보교류를 하는 형태였다. 특이한 점은 단편적인 게시글 내에서 댓글로 소통한다는 것이다. 댓글은 그 특성상 더욱 산발적이며 모임의 주체가 특정되기 어렵기에 쉽게 모이고 쉽게 흩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타투는 재빠르게 언급되고 또 다른 새로운 정보에 의해 덮이는 과정을 반복하며 소비되었고, 이에 따라 타투소유자들은 순간적으로 소통하고 분산되었다.

현대의 타투문화집단은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타투소유자들은 타투 자체에 몰입하기보다 그저 다양한 관심사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투문화 외에 매우 다양한 관심사와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 이는 타투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기도 하였지만, 아예 관련이 없는 다른 관심사이기도 하였다.

“한동안 타투에 빠져있었던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한때는 신발 수집하는 걸 좋아했었고, 지금은 위스키 마시는 거에 심취를 많이 해서, 지금은 그쪽으로 수집하면서 맛보고, 그런 동호회도 찾아보기도 하고.”(참여자 I, 남, 30세, 회사원)

3) 비일상적 유대

Maffesoli(2000/2017)는 Turner(1969)의 리미널리티의 개념을 빌려와 개인들이 쓸모없이 응집하여 정서적 유대를 느끼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타투가 아무리 대중화되고 소비문화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타투를 한다는 것은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이다. Turner(1969)는 어떠한 단계에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커뮤니티스(communitas)라고 부르며 그들이 진한 동료애를 느끼는 현상을 설명한 바 있는데, 타투소유자들 역시 같

은 고통을 참아낸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진한 동료애를 느낀다고 나타나 커뮤니티스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타투라는 같은 고통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에서 오는 정서적 유대로도 나타났고, 타투라는 복식스타일을 선택한 데서 오는 취향의 유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같은 경험, 같은 취향 등으로 인해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그들은 동질감을 경험하였다.

“정서적 유대감? 자기 몸에 바늘을 대봤다는 것만으로 어떤 경험에 공감이 되니까, 확실히 다르죠. 적어도 자기 몸에 바늘을 뒀다는 건... 그제 깊이가 있든 없든, 그 마음가짐이 된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랑, 아직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거랑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계단을 올라가서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거랑 아직 한 계단 아래에서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겠죠. 그걸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참여자 G, 남, 29세, 음악가)

3. 하위문화 내 구별 짓기

Thornton(1996)은 하위문화 내에서 무엇이 힙한 것인지 아는 것이 하위문화 자본이 되며, 이에 따라 집단을 분화시키고 신 내 위계를 만든다고 하였다. 타투문화를 향유하는 타투소유자들 내에서도 특정한 타투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별 짓기 양상이 나타났으며, 유행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타투문화 내에서 특정 타투의 배척에 관한 내용을 하위문화 자본과 배척하기로, 타투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하위문화 자본을 좇는 타투소유자의 특성을 영원한 비주류 추구로 정리하였다.

1) 하위문화 자본과 배척하기

하위문화 자본은 계속해서 새로운 재화나 의례로 대체되지만(Thornton, 1996), 타투는 영구성이라는 특수한 성질 때문에 쉽게 소비되는 작고 간단한 레터링 및 감성 타투를 하지 않는 것, 즉 계속해서 유행이 바뀌는 타투를 좇지 않는 것이 힙함이라고 여겼다. 타투문화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타투소유자일수록 유행하는 타투를 가진 사람들을 같은 취향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현대 타투문화에서는 최신유행을 모르고, 따르지 않는 것이 하위문화 자본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유행과 관련 없이도 타투소유자들이 신을 구

별하는 현상은 나타났는데, 이례즈미 타투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대한 구별에 해당하였다. 이례즈미는 전설이나 가문의 상징 등이 표현된 일본 에도시대 우키요에를 기반으로 시작된 예술적인 타투이다(Yang, 2015). 하지만 국내에는 폭력조직의 결속력과 위협을 위한 용도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그러한 상징을 비행청소년들이 강해보이기 위해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타투소유자들의 배척을 받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이례즈미 타투를 한 이들을 양아치라고 단정 짓는 모습을 보이며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례즈미가 외국의 전통과 가문을 따르는 타투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시술되는 이례즈미는 말 그대로 걸치장의 기능만 하며 진정성을 잃었으므로 정통이 아닌 문화를 향유하는 그들을 무시하며 배척하였다. 현대의 타투는 장르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도안 자체의 의미나 역사에 얽매이지 않지만, 이례즈미 타투는 유독 타투소유자 내부에서 ‘힙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여러여리한 타투나 글귀 타투 이런 걸 한 사람들은 보면 멋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인터넷에 얽은 선으로 하는 타투가 유행을 하니까, 유행 따라가는 그런느낌이예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참여자 R, 여, 24세, 카페 아르바이트)

2) 영원한 비주류 추구

비주류문화로서의 타투는 역사가 깊다. 해외에서는 인디 음악 하위문화에서 그들의 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소 혹은 사회적 단절을 추구하는 메시지로서 타투를 사용해왔는데, 국내 음악 신에서도 이러한 문화를 수용하면서 아티스트의 상징물로도 인식되기 시작했다(Kim & Ha, 2018b). 하지만 음악 장르들이 대중문화로부터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타투는 대중에게 트렌디함이라는 새로운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고(Irwin, 2003), 국내에서도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Thornton(1996)은 하위문화 신에서는 ‘무엇이 최신 유행인가’보다는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한 바 있다. 즉, 주류에서 받아들여져 트렌디함이라고 일컬어지는 유행은 하위문화 신에서 더 이상 하위문화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잃는다는 것이다. Irwin(2003)은 타투의 대중화는 비주류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타투소유자들 역시 그들이 비주류라는 데서 오는 특별함을 추구

하여 타투를 수용하였지만, 주류문화로 흡수되는 대중화 양상을 보이자 거부감을 드러내며 새로운 하위문화 자본을 찾기 시작했다. 모순적이게도 문화적 몰입도가 높은 참여자의 경우 ‘타투가 없는 몸’을 새로운 하위문화 자본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타투가 대중화되면서 언더그라운드 신에서 타투가 없는 몸이 흔하지 않은 새로운 비주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리얼 힙스터들은, 물론 일찍이 타투도 하고 했겠지만, 퍼펠(가수)은 다 지웠어요. 알기로는 피부 이식을 받았나 아무튼. 요즘은 너무 대중적으로 다들 타투를 하니까 또 없는 게 힙인 것 같아요. 이젠 유니크함이 없어서 그런가... 에이, 나만 있었었는데.” (참여자 H, 남, 30세, 영상감독)

하위문화 자본은 매우 유동적이라 대중이 이를 포착하고 수용하는 순간 하위문화 구성원들은 다른 하위문화 자본으로 재빨리 눈을 돌린다. Thornton(1996)은 하위문화적 지식을 정의하거나 분배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연결망은 주류미디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타투 역시 유명 아티스트 및 스타들이 수용하고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면서 대중성을 띠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비주류라는 데서 오는 하위문화 자본을 추구하였던 타투문화 구성원들은 대중화된 타투와 구별되기 위하여 다양한 책략들을 개발하며 영원한 비주류를 추구하였다.

4. 일반인 코스프레

‘일반인 코스프레’는 한 문화의 매니아가 평소에 자신의 성향을 숨기는 행동 양상을 일컫는 속어이다(Maffesoli, 2000/2017). 현대의 타투소유자들이 타투를 숨기고 다른 이들과 다름없이 일상에 참여하는 모습 또한 이 속어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특성은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한 포스트하위문화 특성 중 비밀, 침묵, 가면으로 설명된 Maffesoli(2000/2017)의 보여주기와 감추기 특성과 그 맥을 함께 하였다. 본 절에서 현대의 타투소유자들의 특수한 소통 특성으로 나타난 비밀스러운 팬덤과 사회적 가면 쓰기를 설명하였다.

1) 비밀스러운 팬덤

Maffesoli(2000/2017)는 침묵이라는 단어로 집단이 보존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집단 내부에서 공유하

는 비밀이 실상 그 내용이 없더라도, 공유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대를 느끼고 결속력을 다진다는 것이다. 국내 타투소유자들은 팬덤과 관련되는 공통된 분모를 타투를 통해 발견하고 비밀스럽게 소통하면서 침묵으로 결속력을 확인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의 타투가 세상에서 하나뿐이길 바랐지만, 그 도안의 내용이 팬덤과 관련된 것이라면 똑같아도 상관 없이 오히려 호감을 느낀다며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관심의 대상이 소수의 전유물이라면 더욱 짙은 동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좋아하는 콘텐츠에서 팬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을 새김으로써 팬들끼리는 굳이 도안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아도 서로가 팬임을 알아볼 수 있지만, 외부인이 봤을 때는 그 코드를 읽지 못해 Maffesoli (2000/2017)가 설명한 비밀과 침묵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 영화에서만 나오는 담배꽂이 있어요. 시중에는 없고, 영화에서만 나오는 가상 브랜드거든요. ... (중략) 일단 이걸 한 사람은 무조건 팬일 거란 말이예요. 아는 사람도 잘 없어요. 길에서 보면 ‘너도 아는 녀석이구나’ 할 것 같아요. 매니아적인 관심으로만 가능한 거니까.” (참여자 R, 여, 24세, 카페 아르바이트)

2) 사회적 가면 쓰기

대부분 20대로 구성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타투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체감하였고, 미래에 직장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갈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깔려있는 부정적인 인식에 저항하기보다, 사회적 노출 상황을 고려하여 시술부위를 선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노출 정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비즈니스 정장을 입었을 때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정하여 타투를 채워나갔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 중 타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들은 타투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깨지 않으면서 주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사회적인 부위에 하는 타투는 한정된 페르소나를 전달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꺼리기도 하였다. Maffesoli(2000/2017)는 가면으로 개인들이 사회적인 구조 내에서 페르소나를 단일하게 통일하는 특성을 설명한 바 있다. 기존 권력에 대항하는 하위문화

내의 특이한 헤어나 패션스타일 등이 개인들의 정체성을 고정시켜 사회적으로 하위문화로 위치시킨다는 것이다. 타투는 외부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스타일적 요소로서 그가 설명한 페르소나를 통합시켜주는 가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참여자들은 직업적 환경에서 자유로웠어도 얼굴, 손과 같이 사회적인 부위에 하지 않았을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타투소유자들은 타투문화 외부의 사람들에게 타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짐을 알고 있었고, 타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가면을 쓰는 특성을 보이며 사회 내에서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였다.

“가족모임이나 결혼식장? 어른들 많은 곳에는 굳이 이야기 나오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굳이 드러내서 그런 얘기 듣느니, 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거 바르면 살짝 뒤편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참여자 W, 여, 28세, 인디잡지에디터)

5. 소비적 타투시장의 형성

국내의 타투소유자를 통해 한국 타투문화의 새로운 특성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타투소유자들이 타투의 영구적인 속성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낌에 따라 여타 소비재를 쇼핑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타투를 소비하며 다른 패션상품 시장과 같이 타투시장이 형성된 점이다. 세부적으로 인스턴트식 소비, 타투리스트 쇼핑, 불법 예술시장 특성이 확인되었다.

1) 인스턴트식 소비

타투는 영구적인 시술로, 몸에 한 번 시술되면 또 다른 시술과 같은 물리적 변형이 있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흔적이다. 따라서 디자인과 그 내용을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하였고, 타투소유자는 타투에 심오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아왔다(Irwin, 2001). 하지만 현대의 타투소유자들은 타투를 하나의 소비재로 받아들이고 인스턴트식으로 소비하는 특수한 양상이 나타났다. 그들은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타투시술을 결정했고, 타투에 큰 의미를 담지 않고 취향에 따라 선택했으며,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상품으로 인식하였다.

타투는 일부 기성품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거에 비해 가볍게 인식된다. 그 배경으로 타투 장르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아기자기한 색감의 감성 타투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감성 타투는 국내에서 시작된 특수한 스타일로, 해외에서 ‘Korean tattoo’ 즉 한국식 타투로 통용되기도 한다(Jang, 2018a). 일반적인 패션으로 타투를 소비하는 타투소유자들은 타투가 영구적이라는 점에서 부위가 넓고 큰 타투를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왔지만 감성 타투가 유행하면서 영구성에 대한 부담을 지워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배경으로는 타투리스트들의 표현력 향상으로 인해 커버업(cover-up)이라는 대체재가 등장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소비재로 취급하며 비유하자면, 타투는 영구적이라는 점에서 반품은 불가능하지만, 추가적인 비용만 낸다면 얼마든지 교환은 가능한 제품인 것이다. 타투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거부감이 드러났지만, 기존 타투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키는 커버업에 대한 부담감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결정한 만큼 언제든지 질릴 수 있을 것을 가정하였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쉽게 다른 타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거는 고양이고, 진짜 생각 없이 친구랑 얘기하고 장난치다가 원래 예정에 없었는데, 그냥 당일에 가서 한 거예요. 보통 즉흥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해야죠. 재밌잖아요.” (참여자 O, 여, 22세, 대학생)

2) 타투리스트 쇼핑

타투 르네상스 이후 타투리스트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엘리트로 특징지어지면서 예술가적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Rubin, 1988). 국내에서도 타투업계에 미술 전공자의 유입이 활발해지며(Jang, 2018b), 스스로도 예술가에 가깝게 인식한다(Park et al., 2016). 타투산업은 본질적으로 주문제작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타투리스트는 의뢰인의 피부가 없다면 작품활동을 이어나가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달리 타투리스트는 상업성을 강하게 띤다. 스스로 예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스타일을 잠재 고객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고객을 선택적으로 한정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사업적 수익성과 예술가로서의 가치를 모두 얻을 수 있다.

과거에는 포트폴리오를 전시할 공간이 타투샵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SNS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감에 따라 타투리스트를 쇼핑하는 시대가 왔다. 포트폴리오로 쓰이는 SNS는 인스타그램이 지배적이며(Jang, 2018a), 실제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타투리스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본인이 원하는 느낌을 실현해줄 수 있고 작품 색이 잘 맞는 타투리스트를 탐색하였고, 해시태그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장르, 소재, 색감 등을 한정시키기도 하였다. 또, 그들은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처럼 후기를 살피기도 하였다. 음지문화로 존재하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불균형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은 타투를 하나의 상품으로 받아 들여 가격 비교, 정보검색 등 타투리스트를 쇼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타투문화의 매우 현대적인 특성으로 확인된다.

“타투웨어라는 어플리케이션. 요새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아서 알아보기 힘들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가격 이벤트 하는 것도 올라오고, 가격 문의나 이런 것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서치하는 용도로도 많이 써요.” (참여자 V, 여, 27세, 회사원)

3) 불법 예술시장

국내 타투문화는 시술면허나 거래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법 음지문화로 존재하고 있다. 타투는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작업이므로 보건 위생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불법 시술인 관계로 시술자의 자격과 교육에 대한 기반이 전무하다. 시술자들은 타투이스트끼리의 교류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련을 하는 상황이며, 시술, 멸균, 폐기물, 장비, 예방접종 등의 위생 관리 전반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Park et al., 2016). 타투의 용도를 고려했을 때, 타투리스트에게 의료자격증을 요구하기보다 위생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법과 현실은 여전히 괴리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합법화가 될 것을 기대하였다.

더불어 그들은 가격 책정과 거래방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타투거래는 현금 결제방식이 지배적이며, 예약

금이나 가격 자체에 있어서도 시술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타투는 타투이스트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시술받는 타투소유자의 몸에 영구적으로 남으므로, 도안에 대한 소유권이 모호하다. 그래서 국내에서 타투이스트들은 ‘1인 1도안’이라는 암묵적인 규칙을 세우고 지키지만(Jang, 2018b), 일부 수익을 좇는 타투이스트들과 본인만의 타투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고객 간의 마찰은 국내 타투문화 내에서 빈번하였다. 불법 예술시장에서 타투소유자들은 타투의 합법화를 통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길 바랐다.

한편, 일부는 사회적 규제가 생길 시 초래되는 제한적인 예술적 표현, 대량생산, 상업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언급하며, 현재의 아슬아슬한 국내 타투문화의 지위를 즐기기도 하였다.

“첫 번째는 위생. 왜냐면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타투염료 중에 폐놀이가 있는데 그게 독성이 있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합법이 아니니까 기준치가 없어요.” (참여자 Q, 여, 23세, 편입 준비생)

I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타투가 대중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타투소유자들이 타투를 수용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현상을 관찰하여 현대사회의 특수한 복식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하위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등장한 개념인 포스트하위문화 관점을 통해 현 시점의 문화 현상으로서의 타투문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포스트하위문화 관점을 적용하여 도출한 한국 타투문화의 특성은 동조를 통해 타투문화로 유입되는 양상과 관련되는 산발적 형성, 일시적 유대를 기반으로 유동적으로 타투문화를 향유하는 스트리밍적 참여, 타투문화 내에서 하위문화 자본에 따라 신을 구별하고 비주류를 좇는 하위문화 내 구별 짓기, 사회 내에서 타투의 노출을 조절하는 과정과 관련되는 일반인 코스프레로 나타났다.

첫째, 산발적 형성의 경우 문헌에서 고찰한 포스트하위문화 특성 중 산발적 네트워크, 끼리끼리 모임과 맥을 같이 하며, 국내 타투소유자들이 특정 대상과의 동조를 통해서 타투문화에 유입하는 특성이 확인되었

다. 그들은 동경집단과 정서적 공감, 포래문화와 지리적 전염, 무정부주의적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타투문화를 향유하게 되었고, 정서적 공감을 한 대상과는 동조에 따라 유사한 스타일이 나타났지만, 포래집단 내에서는 스타일과 관련한 동조는 미미하였으며, SNS 내에서는 특정 스타일이라기보다 콜라주 형식으로 취향에 따라 산발적인 동조가 일어났다.

둘째, 스트리밍적 참여의 경우 포스트하위문화 특성 중 유동적 참여, 일시적인 정서적 유대에서 언급된 관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부 주제로 일시적 머무르기, 표류적 넘나들기, 비밀상적 유대 특성이 확인되었다. 타투소유자들은 타투문화에 몰입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들이 향유하는 다양한 문화들 중 하나로서 타투를 향유하며 다양한 집단을 표류하였다. 특히 타 관심사로 응집한 집단에서 타투를 중심으로 새로 응집하기도 하며 집단이 중첩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그들은 주체적으로 몸을 재구성하는 타투를 했다는 공통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타 타투소유자들과 비밀상적이고 일회적인 유대를 경험했다.

셋째, 하위문화 내 구별 짓기는 포스트하위문화 특성 중 스스로 구별 짓기, 끊임없는 소수 찾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으며, 해당 특성을 통해 타투문화 내에서 하위문화 자본에 따라 신을 구별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투소유자들은 타투문화 내에서도 특정 타투들을 배척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하위문화 자본에 따른 배척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타투가 대중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하위문화 자본이 높은 타투소유자들은 대중적인 타투로부터 멀어지며 애쓰며 영원한 비주류를 추구하였다.

넷째, 일반인 코스프레 특성은 비밀, 침묵, 가면으로 설명된 보여주기와 감추기 특성과 그 맥을 함께하며, 사회 내에서 타투소유자들이 타투노출을 조절하여 일상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설명되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팬덤의 상징물이 담긴 타투는 비밀과 침묵으로 작용하며 외부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서로는 알아볼 수 있다는 비밀스러운 팬덤 특성이 나타났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 타투소유자들은 타투를 은폐하고 타투가 없는 일반인의 모습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면 쓰기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이 외에 한국에서 특수한 타투문화에 대한 새로운 특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소비적 타투시장

의 형성으로 정리하였다. 국내 타투시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며 여타 패션상품시장과 같이 상업화가 진행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국내 타투 소유자들은 타투를 인스턴트식으로 소비하였다. 그들은 타투를 선택할 때 다소 즉흥적인 모습을 보였고, 의미를 많이 담기보다 기성품을 고르듯 소비하였다. 또한, 현대의 타투이스트는 SNS상에 그들의 작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고객을 모았고, 타투소유자는 원하는 작품 색을 탐색하며 쇼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최근 가격을 선제시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며 지역, 가격, 장르 등에 따라 검색이 가능한 국내 타투 관련 플랫폼이 등장하기도 하며 타투소유자들은 여타 복식소비재를 쇼핑할 때와 유사하게 타투이스트 쇼핑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타투는 시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면허나 거래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투 무법지대로 통하는 불법 예술시장이다.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국내에서 타투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타투소유자는 무분별한 가격 책정과 현금 거래방식에서 벗어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시술과, 도안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길 바라며 합법화에 동의하였다.

현대의 타투문화는 더 이상 과거의 저항성 기반의 상징을 중심으로 응집하지 않는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문화적 응집 양상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핀 포스트하위문화 관점들은 사회학자들에게 있어 현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시각인데, 국내 타투문화 향유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현상의 특성을 도출하고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내에서 개인이 유동적으로 문화집단을 형성하고 참여하는 흐름을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타투문화의 특성을 고찰함에 있어, 타투소유자만의 경험에 기반한 해석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참여자의 대부분이 20대로 구성되어 현 시점의 젊은 세대에서 향유하는 타투문화를 깊이 있게 고찰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지만, 타투는 사회 내에서 여전히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타투소유자뿐만 아니라 타투가 없는 다양한 세대의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까지 고려하여 타투문화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국내 타투문화에 대한 더욱 풍부한 사회적 상호작용론적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 내에서 타투문화가 취향 문화로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여 현대 복식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였다는 데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문화 일반의 현대적 특성을 타투문화에서도 발견하고 논의함으로써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타투산업은 불법 시술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성장이 더딘 와중에, 타투문화 현상을 밝혀 타투가 더 이상 불량한 집단의 일탈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자기표현의 수단임을 학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타투시술의 합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타투 합법화를 통해 시술과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패션, 예술, 문화산업의 발전과 부수적인 관광산업의 발전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tkinson, M. (2002). Pretty in ink: Conformity, resistance, and negotiation in women's tattooing. *Sex Roles, 47*(5-6), 219-235. doi:10.1023/A:1021330609522
- Bang, S.-R. (2008). Study on the change of significance in female tattoos.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0*(2), 39-56.
- Bennett, A. (2011). The The post-subcultural turn: some reflections 10 years on. *Journal of Youth Studies, 14*(5), 493-506. doi:10.1080/13676261.2011.559216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R. Nice, Tr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9)
- Cho, H.-S. (2002). An essay on the origin and change of East-Asian tattoo. *The Korean Folklore, 35*, 151-173.
- Durkheim, É. (2017).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2nd ed.) [A primitive form of religious life (2nd ed.)] (C. J. Noh & H. S. Min, Trans.). Seoul: Minyoungsa. (Original work published 1916)
- Fiske, J. (1989). *Reading the popular*. London: Routledge.
- Gilbert, S. (2004).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Tattoo, forbidden fashion history] (S. H. Lee, Trans.). Seoul: Renaissance.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Gordon, M.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aenfler, R. (2014). *Subcultures: The bas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all, S., & Jefferson, T. (Eds.). (1976).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s in post-war Britain*. London: Rou-

- ledge.
- Heddige, D. (1998).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D. Y. Lee, Trans.). Seoul: Hyunsilbook. (Original work published 1979)
- Hoggart, R. (1958). *The uses of literacy*. Harmondsworth: Penguin.
- Irwin, K. (2001). Legitimizing the first tattoo: Moral passage through informal interaction. *Symbolic Interaction*, 24(1), 49–73. doi:10.1525/si.2001.24.1.49
- Irwin, K. (2003). Saints and sinners: Elite tattoo collectors and tattooists as positive and negative deviants. *Sociological Spectrum*, 23(1), 27–57. doi:10.1080/02732170309206
- Jang, H. J. (2018a, June 23). 타투의 세계 [The world of tattoos]. *The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22139005&code=210100
- Jang, H. J. (2018b, June 23). 통념의 벽 너머는 타투, 제도의 벽에 막혀 여전히 ‘불법’ [Tattoos beyond the walls of conventional wisdom, still ‘illegal’ because of the system]. *The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22141005&code=210100
- Jeong, S.-K., Doo, J.-K., Yoo, S.-E., & Kim, Y.-H. (1991). A psychiatric study on the tattooing and the self-injured behavior - Demographic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 *The Chonbuk University Medical Journal*, 15(3), 290–298.
- Kang, e.-j. (2008). A study on changes in cultural meaning of tattoos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19, 403–412. doi:10.21326/ksdt.2008..19.037
- Kim, G., & Ha, J. (2018a). Korean tattoo from the perspective of Jean Baudrillard's consumer theory.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6(4), 485–502. doi:10.29049/rjcc.2018.26.4.485
- Kim, G. H., & Ha, J. S. (2018b). The Korean body philosophy and tattoo culture. *Journal of Fashion Design*, 18(1), 1–17. doi:10.18652/2018.18.1.1
- Kim, H.-J. (2013). Study on the tattoo punishment in Korean.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5(3), 25–52.
- Kim, M. (2007). *자연 회귀의 사회학: 미셸 마페졸리* [Sociology of natural regression: Michel Maffesoli]. Paju: Sallimbooks.
- Kim, M. K. (2000). 소집단과 네트워크 형성의 기제로서의 ‘비밀’: 게오르크 짐멜의 ‘비밀결사’와 미셸 마페졸리의 ‘부족’을 중심으로 [‘Secret’ as a mechanism for the formation of small groups and networks: Focused on Georg Simmel's ‘secret association’ and Michel Maffesoli's ‘tribe’]. *East Asian Studies: The Journal of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39, 217–248.
- Kim, M. Y., & Lee, K. H. (2007). Study on fashion sensibility and emotion through tattoo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3), 331–342. doi:10.5850/JKSCT.2007.31.3.331
- Kim, T. (2017). Trans-local subculture production of youth musicians through Asia: Post-subcultural approach. *Cultural Studies*, 5(2), 73–99.
- Kim, W.-S., & Kang, H.-S. (2015). A study on the formation of symbolic meanings of athletes' tattoo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3(1), 41–52.
- Kim, Y., & Geum, K. (2016). A study on the reception and spread of tattoo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6(3), 18–31. doi:10.7233/jksc.2016.66.3.018
- Lee, D. (2007). Appearanc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folk tattoos. *The Korean Culture Journal*, 22, 335–371. doi:10.17329/kcbook.2007..22.014
- Lee, J.-H., & Kim, S.-J. (2004). A study on the aesthetic value featured in the body decoration in contemporary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2(5), 721–736.
- Lee, J. Y., Jung, H. J., Kim, M. S., Choi, Y. J., Lee, D. R., Ahn, J. Y., & Park, M. Y. (2011). Clinical observation of tattooed prisoners.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49(5), 398–407.
- Maffesoli, M. (2017). *부족의 시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개인주의의 쇠퇴* [The age of tribes: The decline of individualism in postmodern society] (J. H. Park & J. Shin, Trans.). Paju: Munhakhongne Publishing Corp.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Muggleton, D. (2000). *Inside subculture: The postmodern meaning of style*. Oxford and New York: Berg.
- Muggleton, D. (2005). From classlessness to clubculture: A genealogy of post-war British youth cultural analysis. *YOUNG*, 13(2), 205–219. doi:10.1177/1103308805051322
- Muggleton, D., & Weinzierl, R. (Eds.). (2003). *The post-subcultures reader*. Oxford and New York: Berg.
- Nam, M. W. (2018). Tattoo owner's value and tattoo's symbolism. *Korea Science & Art Forum*, 33, 69–87. doi:10.17548/ksaf.2018.03.30.69
- Park, J.-S., Ko, E., Kim, J.-H., & Kim, S. (2016). *The base research for safety management of decorative tattoo*. Seoul: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 Prus, R. (1997). *Subcultural mosaics and intersubjective realities: An ethnographic research agenda for pragmatizing the social science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Redhead, S. (1997). *Subculture to clubcultures: An introduction to popular cultural studies*.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 Robards, B., & Bennett, A. (2011). MyTribe: Post-subcultural manifestations of belonging on social network sites. *Sociology*, 45(2), 303–317. doi:10.1177/0038038510394025
- Roberts, D. (2015). Modified people: indicators of a body modification subculture in a post-subculture world. *Sociology*, 49(6), 1096–1112. doi:10.1177/0038038514554672
- Rubin, A. (Ed.). (1988). *Marks of civilization: Artistic transformations of the human body*. Los Angeles, CA: Museum of Cultural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hornton, S. (1996). *Club cultures: Music, media and subcultural capital*. Hanover and London: Wesleyan University Press and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Troeltsch, E. (2005). *The absoluteness of christianity and the history of religions* (D. Reid, Tran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01)
- Turner, V. (1969).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Chicago, IL: Aldine Publishing.
- Weber, M. (2018).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Protestant ethics and capitalist spirit] (M. J. Park, Trans.). Paju: Hdjis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20)
- Williams, R. (1971). *Culture & society: 1780-1950*.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Williams, R. (1976).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London: Fontana.
- Yang, S. M. (2015). A study on the Japanese Irezumi Tattoo of Ukiyo-e patter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1(2), 203–213.
- Yun, Z.-H., & Yoo, Y.-S. (2001).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 of modern tattoo look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1(3), 87–98.

김 가 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하 지 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교수
